

# 양축가가 없는데 농림수산부, 축협이 존재하는가?



신 정재  
과학사료(주)

**우**화적인 얘기가 있다.

더운 여름에는 “너만 시원하라”고 하면서 모여서 자고 겨울에는 “너만 따뜻하라”고 하면서 서로 떨어져서 잔다는 면양들의 생리적인 습성에서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비협동심에서 자기까지 망하는 인간상을 풍자하는 얘기다.

작년 내내 계속되어왔던 육계업계의 불황은 바로 과잉생산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종계의 계속적인 증가와 초생추의 무리한 입식의 결과이며 이는 곧 면양들의 생리와 같은데서 온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하다. 종계 숫자를 자율적으로 줄인다는데 초생추의 입

추를 조절한다면 다른 사람만 수지맞는다는 생각때문에 다같이 죽는 결과가 아닌지 더욱 답답하다.

작년도의 육계kg당 생산가는 약 1,000원 (축협중앙회는 967원 양계협회는 1,030원)이며 출하가격은 월평균 (산술평균)으로 800원 전후이다. 3억6천만마리(평균체중 1.8kg)가 출하됐다고 예상한다면 작년 한 해의 총 육계업에서 손해 본 액수는 약 650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금년부터 냉장계육(미절단)의 수입개방에 맞추어 육계업을 포기하고 길을 터 주겠다는 것인지 또는 다 타버린 폐허에

서 새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 폭이 아니고 새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로 년간 육계소비량과 증가율을 산정하여 적정수준(월별)의 육계생산규모와 이에 따른 종계입식의 자율적인 조절 모두 어렵다고 하겠지만 양돈업계에서는 몇년전에도 또 금년에도 이를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일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더 나아가 육계사육업의 쿼터제의 도입이다. 축산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구든지 할것 없으면 양계나 할까 하는식의 손쉬운 양계도 아니며 복병아리 혹은 무슨 명절때 한탕하면 몇번 밀쳐도 괜찮다는 한탕주의 육계업은 더욱 안된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직업의식과 한마리의 병아리를 키우더라도 가장 값싸고 맛있는 고기를 생산한다는 장인정신, 즉 전문가적인 프로의식을 가진자만이 육계업을 할 수 있는 쿼터제도를 빨리 도입하여야 하겠다.

셋째로 사료공장, 축협 종계장 등의 유통과정의 참여이다. 말만의 유통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투자를 해야한다. 물론 작년의 육계의 불황은 사료업자, 종계장 등의 투자를 의미한다 보고 작년 육계업의 총 손실예상액 650억중에서 계산상으로는 사료업자 종계장 육계업자가 각각 3분의 1씩 손해를 나눈 계산이다. 이는 좋던 싫던 이미 유통에 발은 디딘것이라 생각된다. 내

디딘김에 적극 참여, 개발에 주력해야 겠다.

넷째 수입개방에 대항하여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생산가의 접근여부이다. 작년에 불황에서 배웠어야 할것은 다름아닌 원가의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는 제도적인것이 아니라 육계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개인적 능력(기술면, 경영관리면, 모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다음문제가 수입품과의 우위에 있는 계육의 신선도와 위생처리이다. 수입이 개방되면 우선 이웃 중국에서 값싼 계육이 수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에서 문제되는 것이 신선도(변질품), 위생상태(불결 또는 유해잔유물)이다. 이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업자(협회)차원에서의 홍보와 대정부 설득(로비)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 육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료업계, 종계업자, 축협중앙회, 농림수산부가 협동할때 이다. 육계업자가 없는데 병아리, 사료를 어디에 판매할 것인가 농민(양 축가)이 없는데 농수산부, 축협이 존재하겠는가? 육계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육계업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관련단체, 업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으려는 육계업자의 정신자세의 전환은 더욱 시급하다. 내가 종계 입식을 줄이고, 초생추 입추를 줄이면 다른 사람만 좋게된다는 면양의 생리를 탈피하지 못하면 외부에서의 협조나 도움은 얻지 못할 것이라 본다. **망끼**